

심포지엄 「國學으로서의 地理學」 제 2 주제

國學으로서의 地理學：地理科 教育의 現況과 問題點

黃 載 璣\*

◀目 次▶

- |                        |                          |
|------------------------|--------------------------|
| 1. 序 論                 | 5. 地理學과 地理教育의 關係에서 본 問題點 |
| 2. 地理 教育의 歷史           | 6. 國民들의 實生活과의 關係에서 본 問題點 |
| 3. 地理教育의 目標에서 본 問題點    | 7. 結論 및 提言               |
| 4. 地理教育의 人的 資源에서 본 問題點 |                          |

1. 序 論

우리나라에서 現代的인 의미의 地理教育의 시작은 新教育의 胎動期인 舊韓末부터라고 할 수 있다. 즉 “地理科”란 教科目은 1885년에 設立된 培材學堂과 1886년에 設立된 官營 育英公院에서 主要 科目의 하나로 강의가 시작된 이래 오늘에 이르고 있다.

다라서 本 主題는 新教育이 시작된지 100여년, 다시 말하면 地理科 教育이 시작된지 100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國學으로서 또는 生活科學으로서의 地理學의 重要性과 그 國民教育上의 必須性이 退色되어가는 상황을 맞아 地理教育의 重要性과 必須性을 새삼 강조하기 위한 目的으로 시작되었다.

이에 本 主題는 그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첫째로 地理科 教育의 지나온 발자취를 돌이켜 보고, 둘째로 地理科 教育의 目標을 國民教育의 立場에서 考察하고, 뒤이어 地理科 教育의 現況과 問題點들을 追求해 봄으로써 地理科 教育의 나아갈 座標를 設定해 보고자 한다.

2. 地理 教育의 歷史

이제 지난 100여년에 걸친 地理教育의 歷史를

특징이 뚜렷한 몇 개의 時期別로 나누어 目標과 主要內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舊 韓 末

1886年 育英公院에 教師로 초빙된 H.B. Hulbert가 著述한 最初의 地理教科書 “스민필지(士民必知)”는 그 目標을 國際理解에 두고 있으며, 內容은 世界 各 洲別로 된 地誌였다. 뒤이어 1895년의 小學校令, 같은 해의 漢城師範學校令, 1900년의 中學校令에서는 地理教育의 目標을 愛國, 愛鄉하는 精神을 함양하는데 두고 있으며 그 內容은 韓國地理와 世界地理였다.

(2) 日 帝 時 代

殖民地 政策이 시작되면서 總督府는 1911년 教育令과 教科用圖書規程을 發表하고 愛國心이나 民族性에 관계되는 主要科目인 修身, 國語, 歷史, 地理, 法制 등은 총독부가 편찬하고 그밖의 科目들은 檢認定으로 하였다. 이때의 地理科 教科의 內容은 日本地誌(한국포함), 自然地理가 中心이었으며 外國地理와 人文地理分野는 除外시켰다. 따라서 그 目標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外國에 대한 관심을 차단시키고 民族意識을 抹殺하는데 두고 있었다.

한편 이러한 흐름은 日帝末期에 접어들자, 日帝는 朝鮮教育 三大綱領을 發表하여 韓國人을 皇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교수

國臣民化로 몰아 넣게 되었고, 그 결과로 地理科는 修身, 國語, 歷史와 함께 國民科로 불리우는 政策科目이 되었다. 따라서 그 目標은 말할 것도 없이 皇國臣民으로서의 使命을 지각하게 하여 이를 실천에 옮길 수 있게 하는데 있었다. 1945년 終戰이 되자 聯合軍司令部는 國民科의 하나인 地理科의 수업정지 명령을 내리게 된다.

### (3) 混亂期(1945~1959)

해방후 教授要目 시기를 거쳐 우리손으로 처음 만들어져 1953년에 발표된 教育科程은 그 目標을 社會를 위한 教育, 참 人間을 위한 教育, 地域의 特性을 살린 民主教育에 두었으며, 地理科는 中學校에서 140시간, 高等學校에서 105시간에 걸쳐 韓國과 世界에 걸친 地理學의 內容을 混合 指導하도록 하고 있다.

### (4) 量的 膨脹期(1960~1979)

이 기간동안 1963년과 1974년의 두 차례에 걸쳐 教育科程의 改編이 이루어졌다. 1963년의 경우 中學校에서는 그 目標과 內容 構成이 以前의 것과 별 다른 점이 없으나, 다만 1學年에서 주로 地理의 內容을 다루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高等學校에서는 地理 I(韓國地理)은 모든 계열의 학교에서 6단위가 必須로 과해지게 되어 있으며, 地理 II(世界地理)는 必須選擇으로 6단위를 과하고 있다. 教科目標은 역시 國土活用, 鄉土愛, 愛國, 國際理解 등에 두고 있다.

또한 1974년의 경우 中學校는 目標과 內容이 前에 비하여 다를 바 없으나 時間運營이 國史 科目의 신설로 개편된 것 뿐이다. 高等學校의 경우 중전의 地理 I, II가 國土地理와 人文地理로 改編되고 각각 4~6단위로 되어 있어, 國史를 除外한 社會系列의 他科目과 같은 비중으로 과해지게 되어 있다. 또 그 內容 構成은 國土地理는 물론 韓國地理를 中心으로 하고 있으나, 人文地理는 地理學 概論書의 성격이 강하여 모든 계통지리학의 내용을 망라하고 있었다. 후에 다시 논의하겠지만 이 人文地理가 地理學의 모든 分野를 포괄하고 있을뿐 아니라, 開發된 教科書 자체가 어려워 선택에서 많은 地理人口를 잃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5) 質的 內實期(1980~현재)

1981년 개정 공포되고 현재 각급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教育科程에서는 中學校科程은 社會科의 統合原則에 따라 1, 2學年에 걸쳐 중전의 目標과 內容을 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高等學校의 경우 社會 I, II와 함께 地理 I, II로 나누어졌고, 地理 I은 共通必須, 地理 II는 選擇으로 각각 4~6단위로 과하게 되어 있다.

그 內容構成은 地理 I은 중전의 韓國地理와 人文地理의 統合이라 할 수 있는 系統地理이며, 地理 II는 韓國 및 世界各 地域의 地域研究 또는 地誌인 것이다. 즉 地理 I이 地理學內容의 概念中心學習이라면, 地理 II는 그 應用을 겸한 地域研究 事例로 볼 수 있다.

### (6) 大學에서의 地理科 教育

地理科 教育은 前述한 바와 같이 舊韓末以來 初·中·高 및 師範學校에서 비중 높은 중요 教科目으로 과해져 왔다.

그러나 大學에서 學科로 設立된 것은 해방후인 1946년의 서울大 師大에서 최초로 이루어졌으며, 뒤이어 慶北大 師大, 梨花女大, 서울大 文理大 등에서 1950년대말까지 學科가 新設되었고, 1960년대말까지 겨우 7개 學科에 불과하였다.

한편 教育界 및 一般社會에서 地理科를 專攻한 卒業生의 수요가 높아지자 1970년대에 들어 각 大學이 앞을 다투어 學科를 新設하기에 이르렀고 1986년 현재 全國에 30여개의 地理專攻學科가 있으며 年間 1,000여명의 卒業生을 排出하고 있다.

## 3. 地理教育의 目標에서 본 問題點

지금까지 地理教育이 발전해 온 역사를 간략히 살펴보았다. 이제 地理學을 學校教育에서 주요 教科目으로 選擇하여 教育하는 目標은 과연 무엇인가를 살펴보자.

地理教育을 主要 教科目으로 教育하는 目標은 대체로 다음의 세 가지 面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地理學 自體의 發展 및 他學問과의 연 계성을 고려하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地理學 自體의 發展을 위한 단계적인 教育의 目的 과, 歷史·社會·경제·문화등의 人文社會科學 과 地形·地質·海洋·氣候·植生 등의 自然科學 등 계통학문의 발전을 위한 바탕을 제공하고, 이들 學問들과의 均衡과 連繫性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그러므로 地理教育은 이러한 必要性에 비추어 中世以前부터 주요 教科目으로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만약 초·중·고등 각급학교에서 地理教科目을 除外했다고 가정하였을때, 世界史·國史·經濟·地質·氣候 등 各學問分野가 어떻게 發展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면 地理學의 역할과 地理教育의 중요성이 자명해진다 할 것이다.

둘째로 地理教育은 한 國家 또는 民族의 生活와 發展의 바탕이 된다. 즉 地理教育을 통해 그 나라의 國土環境·資源·產業·都市·人口 등을 綜合的으로 理解하게 함으로써, 鄉土와 地域 또는 國土를 愛護하고 나아가 愛國하는 國民的 資質을 기를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世界各國의 自然·資源·產業·都市·文化 등을 綜合的으로 理解하고 比較 檢討함으로써 世界속의 韓國을 부각시키고 나아가 우리의 나아갈 길을 터득하게 하는 것이다.

유럽 각국의 예를 보면, 地理上 發見時代 이후 全世界를 유럽화시키는 과정에서 地理的 知識이 얼마나 큰 공헌을 했는지는 再論할 필요가 없다. 특히 영국의 경우 해가 지지 않는 大英帝國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地理教育이 그 中心의 役割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전통은 전통적인 學問이 강한 프랑스, 독일을 비롯한 많은 유럽국가들에도 비슷한 경향으로, 地理教育이 他教科에 비하여 높은 比重을 차지하고 있음은 주지된 사실이다.

이웃나라 日本의 경우도 兩次世界大戰을 진후 하여 日本이 世界로 발돋움한 시기에 中等學校 教育에서 地理教育을 강화하였던 것이다.

이에 비해 韓國은 이제 바야흐로 세계무대에 진입하는 현 시점에서 오히려 확대해야 될 地理教育을 축소 또는 弱화운운하는 것은 時代를 망각한 知覺없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차제에 中等學校 教育에서 韓國 및 世界 各地域에 대한 地理科 教育을 強化하여 經濟的 發展과 國民福祉向上을 도모하는 밑바탕을 튼튼히 다져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와 같이 自然資源이 빈약하고 國土가 협소한 반면, 人口密度가 높은 國家가 發展할 수 있는 길은 世界로 뻗는 方法外에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國土와 世界의 自然·資源·產業·人口·文化 등에 대한 研究와 이를 國民教育에 反映하는 地理教育을 強化하지 않고 어떻게 先進國이 되려는 것이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겠다.

셋째로 地理教育의 目標은 個人의 人格向上과 바른 知覺形成에 있다. 즉 各地域의 自然的, 文化的인 諸現象과 이들의 相互作用을 살펴보고, 이에서 地域의 特性을 추출하며 이를 다시 다른 地域의 特性과 比較 分析하는 地理學의 方法論은 이러한 過程을 통하여 넓은 시야에서 事物을 觀察하고 比較 檢討하며 個人間 또는 國家間의 理解를 增進시킴으로써 民主市民으로서의 人格完成과 바른 知覺을 갖게 하는데 있다. 이러한 地理教育의 目標야 말로 다른 어느 教科보다도 地理科만이 성취할 수 있는 目標라고 自負해도 좋다고 할 것이다.

그간 우리 民族은 긴 歷史를 통해 좁은 國土속에서 外勢의 끊임없는 도전을 받으며 살아왔다. 뿐만 아니라 新教育이 이땅에 도입되면서부터 장기간에 걸쳐, 일본인들에 의하여 참된 目標가 말살된 地理教育을 받아왔고 그 以後에도 이런 왜곡된 地理科 教育의 觀點은 시정됨이 없이 이땅에서 장기간 실시되고 받아들여져 왔다. 그 결과는 國民들의 人格과 知覺形成에 큰 결함을 초래하게 되었다.

즉 넓은 시야에서 事物을 觀察하고 理解하며, 事實에 立脚하여 事物을 比較 檢討하고 批判하는 知覺과 態度가 先進 어느 國家들 보다 부족하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觀點에서 地理科 教育의 目標을 再定立하고 地理科 教育을 強化해야 先進國의 國民된 資質과 矜持를 갖게 될 것이다.

#### 4. 地理教育의 人的 資源에서 본 問題點

지금까지 地理科 教育의 간략한 歷史와 目標을 통한 問題點들을 살펴 보았다. 다음은 地理科 教育의 또 다른 問題인 人的 資源의 問題를 살펴 보고자 한다.

1946년 解放이 되고 서울大 師大에 처음으로 地理學科가 設置되었던 당시를 회고해 보면, 韓國人으로서 大學學部에서 地理學을 專攻한 學士가 한 사람도 없었다. 다만 高等師範 및 專門部 卒業生 몇분이 있었을 뿐이었다. 따라서 中·高 및 師範學校에서는 물론이고 大學에서조차 地理學 강의를 담당할 專攻者가 없는데서 韓國의 地理教育이 始作되었다.

따라서 1960년대는 물론이고 1970년대 중반까지도 大學에서 地理學을 專攻한 中等學校地理科 教師가 불과 몇 %에 지나지 않았으며, 대다수의 地理教師는 餘他學科를 專攻한 教師들이었다. 다시 말하면 1970년대 까지도 他學科 專攻者에 의해 地理教育이 代行되어져 왔던 것이다.

이러한 地理科 教師 供給부족 현상이 나타나자 1970년대 중반부터 갑자기 全國 各大學에서 地理學科가 新設되기는 하였으나 이때는 이미 때가 늦었던 것이다. 그 理由는 첫째, 餘他學科 專攻者들이 再教育 또는 장기간의 地理科目 指導經歷에 따라 地理科目 資格을 보유하게 된 뒤였고, 둘째는 60~70년대와 같이 급작스런 教師의 수요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셋째는 地理科 教師 자리가 거의 메꾸어진 뒤인 80년대 초반부터 地理學 專攻 卒業生들이 大量으로 배출되었기 때문에 前任教師들이 停年退職을 하기 전에는 教師의 代替가 不可能하기 때문이었다.

물론 他敎科를 專攻한 地理科 教師들도 그동안 研修나 個人研究를 통해 地理學이나 地理教育에 대하여 누구에 못지않는 自信心이 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나, 地理教育의 目標達成이라는 高次元的인 側面에서 보아 大學의 地理學科에서 專攻한 教師에 비하면 소홀함과 부족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다.

한편, 地理學 自體의 發展이란 또 다른 側面에서 보자. 일반적으로 學問世界는 그 分野가

發展하기 위한 두가지 面이 있다고 본다.

첫째는 그 學問自體에 대한 研究의 擴大, 둘째는 研究開發된 學問의 보편화와 보급이 그것이다. 다시 말하면 學問分野의 發展은 그 學問自體의 研究開發이 活性化되어 많은 業績이 쏟아져 나오고, 이런 業績의 普遍化 客觀化가 이루어 지면서 學問의 울타리 밖에 있는 一般大衆의 세계로 普及되어 나가야지만 그 結果가 다시 feedback 되어 學問의 世界로 再導入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地理學은 그 研究開發의 業績이 全無한데서 出發한데다가, 先進外國의 업적마저도 國民大衆의 세계로 보급되는 단계에서 마른 傳達者(專攻敎師)를 갖지 못한채 왜곡되어 갔다.

그 結果는 오늘날의 대다수 국민들이 中等學校에서 地理科授業을 이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意識속에는 地理科 教育에서 받았어야 할 概念과 知覺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地理科 教育은 그 시작에서부터 長期間에 걸친 담당자들의 構造的인 危弱性 때문에, 즉 非專門家에 의한 수업담당으로 그 內容이 誤導되고 目標을 잃게 되어 一般國民大衆들로부터 科目의 重要性이 退色되고 심지어 압기 위주의 보잘것 없는 常識敎科目으로까지 여겨지고 있다.

#### 5. 地理學과 地理教育의 關係에서 본 問題點

앞에서 논했던 것과 같이 韓國의 地理學은 한마디로 “가장 오래된 學問이면서 가장 새로운 學問 分野다”라고 평할 수 있다. 그만큼 오랜 傳統을 가지면서도 新學問으로서의 開發이 늦었다는 뜻이다.

1946년에야 大學에서 學科가 처음 설치됐고 1970년대 중반이후에 各大學에서 學科設置가 普遍化된 것은 先進國들이 대학교육이 시작된 1700년대부터 地理學講議를 시작한 것과 비교해 보면 너무나 큰 격차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앞에서 논한바 있듯 專攻學者의 절대부족과 地理學에 대한 관심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

이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大學에서의 人力不足과 學科設置의 지체는 學問으로서의 地理學과 그 응용인 地理教育과의 사이에 심한 괴리현상을 일으키게 되었다. 즉 地理教育의 측면에서 보면 現場에 專攻教師가 태부족하며 教育內容과 目標에 맞는 자료(교과서, 부도, 참고서적)의 공급이 제대로 갖추어질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러나 大學에 설치되어 있는 地理學의 立場에서 보면, 大部分의 學科가 교수진이 4~5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신설된 영세학과로 地理學 自體의 개발과 研究에 여념이 없으며, 中等教育에서 서비스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한 형편으로 地理教育을 위한 專攻教授나 研究教授도 절대 부족한 단계에 있다. 그러다보니 中等學校 地理教育의 結果로 feedback 되게 되는 地理學에의 效果를 기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地理學이나 地理教育을 專攻하는 教授나 專門家들의 一大 反省이 자체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예를 들면 現在의 地理科 教育科程 目標과 內容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그 결과로 탄생된 教科用圖書는 과연 被教育者들의 발달과정이나 社會的 要求를 充分히 반영하고 있는 것인가? 내용의 선정이 정말 minimum essential한 것인가, 그 構造가 타당한 것인가? 教師들을 위한 배려로 어떤 참고도서를 줄 수 있는 것인가? 등…….

## 6. 國民들의 實生活과의 關係에서 본 問題點

앞에서 지적했던 바와 같이 地理教育이 올바르게 수행되지 못한 결과로 일반국민들의 생활속에서 地理學의인 概念, 知識, 意識 등이 先進諸外國에 비하여 너무 낮음을 지적할 수 있다.

예를들면, 地理教育의 不實로 인하여 地圖에 대한 인식의 부족, 自然과 資源에 대한 관찰과 보전에 대한 知識의 不足, 空間과 距離에 대한 概念의 부족, 事物에 대한 綜合力·分析力의 부족, 地域이나 國家에 대한 이해의 부족 등이 표출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地理教育 現場에서의 入試中心 學習方法과 우리실정에 맞지 않는 선진제외국의 연구내용이 무비관 상태로 현장에 제시되고 있는데에서도 그 책임의 일부가 있다 할 것이다. 어떻게 됐던 결과적으로 地理教育이 國民大衆의 生活과 사고속에 파고 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7. 結論 및 提言

이제까지 地理科 教育의 100여년이 넘는 역사를 더듬어 오면서 오늘날 地理教育이 안고 있는 문제를 目標의 側面, 人的資源의 側面, 學問으로서의 地理學과의 關係, 國民生活의 側面 등을 中心으로 하나씩 고찰해 보았다. 이에 따른 結論과 提言을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리교육의 歷史에 관해 살펴보면 100여년의 긴 역사를 통해 舊韓末에는 기울어져 가는 國家를 위한 愛國, 愛鄉心을 기르기 위하여, 日帝時代에는 그들의 國家利益을 追求하기 위하여, 大韓民國 建國 이후에는 국가발전과 참된 民主市民의 양성을 위해 地理教育이 과해져 왔다.

그러나 현실점에 와서 地理教育의 중요성이 퇴색되는 위기를 맞게된 점을 몇가지 주요 관점으로 나누어 考察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地理教育의 目標面

國家의 發展과 個人的 資質向上을 위해 地理教育은 不可決의 科目이다. 특히 先進國들의 국가발전 단계들을 고찰하면 우리는 이제야 말로 地理科 教育을 強化해야 될 時期라고 판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人格과 知覺形成에 地理教育의 기여면을 강조해야 할 때라고 믿는다.

### (2) 人的 資源의 面

1970년대 중반까지 地理教育은 餘他科目 專攻 教師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형편이었으며, 그 결과는 地理教育의 目標達成에 큰 蹉跌을 유발하여 이를 補完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 (3) 地理學과의 關係面

地理學 自體의 發展을 위한 時間과 人力의 不

足은 그 應用分野인 地理教育 發展에 決定的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관련 학자들의 地理教育에의 關心과 努力이 要求되고 있다.

#### (4) 國民들의 實生活面

長期間에 걸친 地理教育의 軌道 이탈에 따라 一般大衆의 意識・知覺・概念속에 地理教育이 줄 수 있는 主要部分이 결여된 結果를 초래하였고,

이의 是正을 위해서도 地理教育의 새삼스런 강화가 이룩되어야 하겠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세계를 向하여 先進國으로의 進入을 외치고 있다. 이런 時期에 맞추어 地理教育이 그 本來의 目標에 따라 국가・사회발전과 참된 市民 養成에 기여할 수 있게 되도록 地理教育을 강화하는데 함께 努力해야 할 것이다.